

지 상 법 석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44)

芙蓉楷禪師小參 (부용해선사소참) ①

夫出家者 爲耶聖勞 求脫生死
부출가자 위염진로 구탈생사
休心息念 斷絕攀緣 故名出家
휴심식념 단절반연 고평탈가

이 있으리오(할일을 다 마침이라).

若得心無事 佛祖猶是冤家
약득심중무사 불조 유시원가
一切世間事 自然冷淡 方始那由那相應
일체세사 자연냉담 방시나변상응

대저 출가란 티끌세상의 노역을 싫어
하여 생사해탈을 구하며
마음과 생각을 쉬어 인연에 얽매이는
것을 끊고자 함이라 고로 출가라 이름
한다.

만약 마음 가운데 (있는)일이 없으면
부처 조사도 오히려 원수의 집이라,
일체 세간사에 절로 흔들림없이 담담
하여 바야흐로 저변(본분·열반)에 상

“번뇌심이 죽어야 진면목 볼수 있으니
이제 빗장풀고 의식계를 놓아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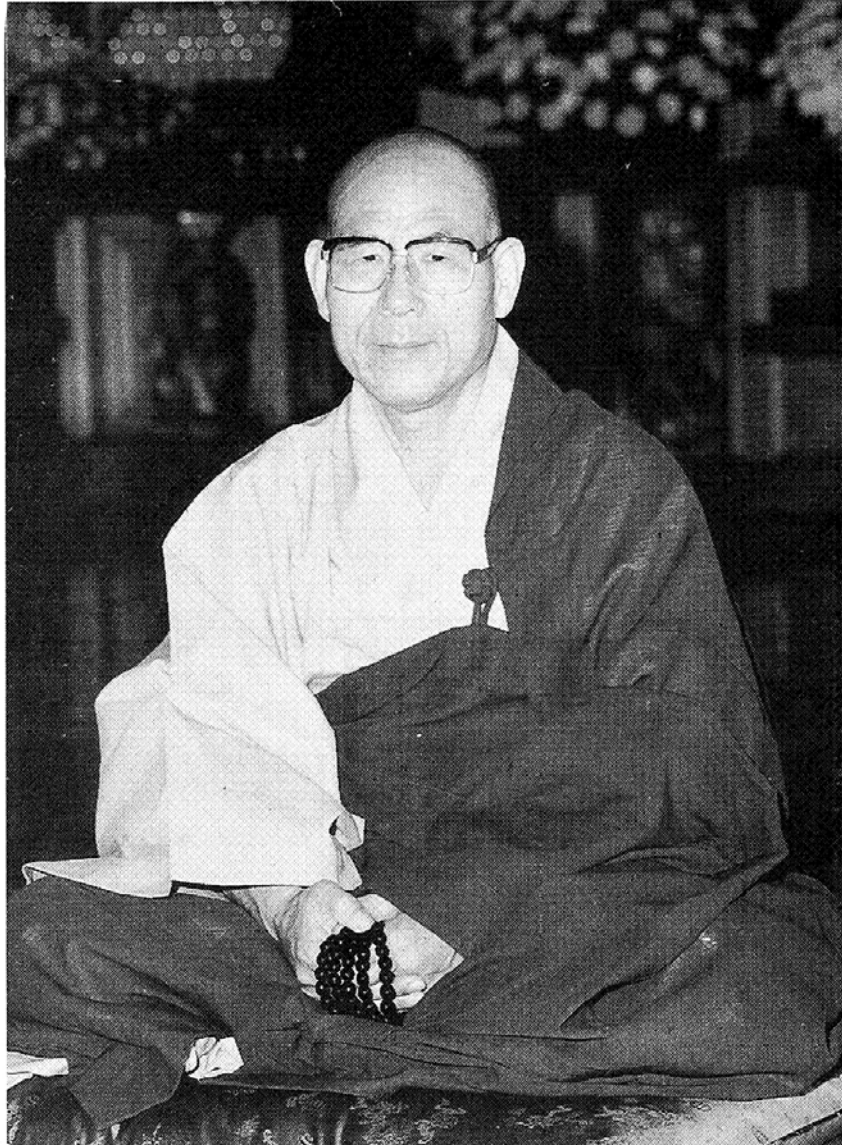
況從無始以來 不是不備經經 又不是不
지종무시이래 불사부경경력 우불사부
知次第
지차제
不遺窮源 止於如此 何須苦若貪戀
불과번두작미 지어여차 하수고고탐련
如今不歇 更待何時
여금불멸 경대하시
思以先聖教人 只要盡却今時
시이 선성교인 지요진각금시
能盡今時 更有何事
능진금시 경유하시

우할 것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은산스님(중국
용산화상)은 죽을 때까지 사람 보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조주스님은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
말이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다만 ‘차
나한잔 마시게 하겠을 뿐) 권침스님(육
조제자 효려선사)은 도토리야 밤을 주
어 양식으로 삼았고,
대매스님(마조의 제자 범상선사)은
연일모 웃을 삼았고 지의도자(임제의
제자 극부)는
다만 종이 웃을 걸치고
현태스님은 다만 배우만을 입었으며
석상스님은 고목으로 집을 삼아 대중
과 더불어 지내면서 ‘다만 죽어서 네
마음 알아 마치고’ (번뇌심이 죽어야
참 면목 보리라)를 요구했고
투자스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쌀을 마
련케(농사지어서)하여
같이 끊어 먹으며 얼마다 살펴 요덕
케 했다.
또 위로부터 모든 조사·성인이 이같은
본분기를 보였나니
만약 좋은 점이 없다면 어떻게 달게
받아들였겠는가. 龍眼

하물며 무시이래로 좇아 일찍이 거쳐
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또한 다음 차
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님이라.
머리를 돌이켜 꼬리를 지음이 이같은
데 그침에 불과하니(꼬리를 물고 이어
져 여기에 이름에 불과하니) 어찌 모름
지기 괴롭게 옥심 내며 그리워하리오.
지금 (험찍임을) 쉬지 않으면 다시
어는 때를 기다리겠는가.
이러므로 역대 성인들이 사람을 가르
치되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몰락 놓을
것을 요구하니
능히 이제 다 놓으면 다시금 무슨 일

“작은 선 하나하나가

벽파스님 후산 금강암 주지



약 력
· 1951년 범어사
동산스님 은사로
득도
· 범어사 김일 대
교과 졸업
· 범어사 주지 역
임
· 현 총림 해동중
이사장, 동국대
학교 이사

우리 불자들이 귀중한 시간을 함애하여
산사나 도심의 포교당 혹은 가정에서 예배
하고 기도하고 열불 참선하는 신앙생활은
인간으로 태어나 복된 일과종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
가 분명해야 방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
의 신앙생활도 목표가 분명해야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망망대해를 건너는 배는 나침반의 지시를
따를 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수행생활 혹은 신앙생활의 점검도 기준이
있어야 정도를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사상이 범람
하고 신흥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곳
곳에서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
과 정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
배하고 기도하고 열불할 때에 부처님의 위
신력에 의지하여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안
녕을 위하여 작은 바램들을 기원하지만 우
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나고 죽는
문제의 해결, 즉 생사해탈에 있습니다. 부
처님이 출가하시어 고행하시고, 정각을 이
루시고, 49년간 고구정념히 말씀하신 거룩
한 일생의 업적이 모두 생사해탈에 초점을

“망망대해의 배는
나침반따라 항해하듯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
윤회굴레 벗어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
이 수행을 통해 쌓은 모든 공덕의 회향처
는 당연히 생사해탈에 두어야 하며 자신이
올바른 수행의 노정에 서 있는가를 측정하
는 척도는 부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49년동안 소승과 중승,
대승의 근거를 위하여 차별적으로 아함경
을 설하시고(阿含十二), 방등경을 설하시고
(方等八), 반야경을 설하시고(二十一藏談說
般若),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고(法華涅槃
八年說) 하지만 차별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설하셨다는 목표는 생사해탈에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은 망망대해의 바닷물이 어느
곳에서 맛을 보아도 한맛인 것과 같습니다.
다시말해 사성제(四聖諦), 12연기법, 반야
사상, 여래장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허근기
를 위하여 설한 것이라고 수준 낮은 불교
로 취급당하곤 하는 인과응보의 도리, 육도
윤회설까지 12부경전 모두가 생사해탈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으며 머나먼 구
도인의 훌륭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길은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 수행자와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
르는 재가자가 있습니다. 이 두 길은 비록
생활방식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상
을 공유하며 불국토 건설을 위한 공동노력
이 필요하며 양자의 관계는 수레의 두바퀴
에 비유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오하며 때로는 이
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출가자와 재가
자가 함께 믿고 따라야 할 가르침은 인과
법(因果法)이라 생각합니다. 지나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거나 현상을 보더라도 인과
법의 도리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며, 각종

의 종교와 은갖 생명, 자연세계의 갖가지
현상 사건을 막론하고 인과법의 굴레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
교가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여 삼천년 가까이 인류의 등불이 되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세계에는 종교와 철학사상이
무수히 많습니다. 신(神)을 전제로 하는 종
교가 있고, 운명론을 신봉하거나 우연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
부분의 종교나 철학사상은 달리 불교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성
립되는 과정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법의 도리는 사건의
발생뿐 아니라 물질적 존재의 성립과정 및
정신세계에까지 적용되어 중생의 육도윤회
와 생사해탈의 구도과정을 합리적으로 설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모든 변화를 신(神)의 조화라고 말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지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허점을 낳게 될 것이며,
운명론에 안주하게 된다면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연론을 주
장한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
어 바람에 띄우는 낙엽에 불과한 존재로

Advertisement for '국씨전영양소' (Kukssi Jeon Yeongyangso) featuring a dietitian and nutritional benefits. Includes text like '단, 5일 복용으로 2~5kg 이상의 감량!!' and '중국 양귀비시대의 궁중요리 「약선」의 이론을 응용한 미용, 건강, 장수를 위한 다이어트 건강식품 「국씨전영양소」'.